



‘마녀의 법정’ 성공으로 자신감 충만한 정려원

“대중의 사랑, 5년만에 찾은 행복 이젠 연타석 홈런 날리고 싶어요”

연기자 정려원(36)은 “보너스 받은 것처럼 지금 기분이 좋다”고 했다. 최근 종영한 KBS 2TV 드라마 ‘마녀의 법정’ 촬영을 앞두고 받았던 소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신이 좋아서 선택한 일부 작품들이 저조한 흥행을 보이자 정려원으로서 대중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2015년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풍선껌’을 끝내고 약 1년을 차기작 선정으로 고민했다. 이번에도 시청자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나를 위해 연기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녀의 법정’ 촬영을 앞두고 “대중도 좋아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마녀의 법정’은 시청률 10%를 넘기가 힘든 요즘 드라마 환경에서 최고시청률 14.3%(닐슨 코리아)를 기록하며 경쟁작들을 압도했다. 정려원의 기도는 그렇게 시원스럽게 이뤄졌다. 그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짜릿함을 2012년 SBS 드라마 ‘샐러리맨 초한지’ 이후 무려 5년 만에 느끼고 있다.

“시청률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빌었다. 저만이 아니라 대중도 좋아하는 드라마가 되길 바랐다. 극 초반에 ‘잘 할 수 있을까’ 막중한 부담감을 느꼈지만, 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절실한 마음으로 이전보다 두 배 열심히 했다. 칼을 뽑았으니 제대로 휘두르고 싶었다.”

“흥행에 무뎠던” 정려원이 시청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이다. 높은 시청률은 그만큼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는 증거이며, 한 작품을 끌고 가는 주인공으로서 많은 스태프들의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요인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성공을 원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드라마의 성공은 절실했다.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컸다. 저를 대체할 연기 잘하는 연기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이 업계는 새로운 얼굴을 원할 테니 제 연기를 보고 싶어 하는 시청자도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야겠다는 마음이 강해졌다.”

30대 중반, 어느덧 40대를 앞둔 나이가 되다보니 좋은 성과를 향한 마음이 더 커졌다. “이제는

미친 듯이 작품이 들어오는 나이가 아니다. 하하! 제 나이에 맡을 수 있는 캐릭터도 많지 않다. 또 시청률 좋은 드라마에 출연했던 연기자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보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더라.”

그렇게 ‘마녀의 법정’은 어렵게 잡은 기회이고, 작품에 임하는 각오가 단단해지고 간절함까지 더해지니 중압감도 커졌다. 초조함으로 인해 손이 떨리기도 했고, 그럴 때면 화장실로 자리를 피해 마음을 안정시키곤 했다. 카메라를 만지면서 “나는 두렵지 않다”고 주문을 외우며 “김이나 더러다 스스로 목숨을 잡아끄는 심정”으로 현장에 자신을 내던졌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고,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드라마에 완전히 녹아들게 됐다.

“참 행복한 게, 친구들이 모니터링을 해주려고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보더라.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 예전에는 가방이나 옷이 어느 브랜드 제품이냐고 묻던 주변 사람들이 이번에는 드라마에 대해서만 질문하더라. 하하!”

1년 전만 해도 자신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 불안함에 “TV를 보며 숨이 턱턱 막혔”던 정려원이었다.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아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굶은비가 내렸다. 하지만 비를 피하지 않았다.

“비는 반드시 멈출 것이고, 언젠가는 날씨가 갠 것이라고 믿었다. 무리하게 비를 피한다고 그 비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다.”

“1년 치 에너지를 3개월 동안 확 쏟아” 정신과 체력적으로 공허함을 느끼지만,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얻는 만족도가 크기에 정려원의 마음은 좋은 기운으로 가득하다. 연말 연기대상 시상식에서도 연기상보다 대중의 반응이 반영된 인기 상에 더 욕심을 내고 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인 것 같다. 좋은 작품과 좋은 동료, 스태프들을 만나 모두가 하나가 된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그리고 “결혼도 타이밍”이라며 웃는다. “오랫동안 하지만 결혼을 속제로 여기면 하기 싫어질 것 같다. 사회에서 결혼을 ‘강요’하는 나이이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이를 떠나 하고 싶을 때 하고 싶다.”

‘마녀의 법정’으로 자신감을 되찾은 정려원에 게 다음 목표를 물었다. 그는 “연타석 홈런, 헤트 트릭을 이루고 싶다”고 했다.

백슬미기자 bsm@donga.com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심정으로 연기했죠
1년치 에너지를 3개월에 다 쏟아 부었거든요
연말 시상식서도 대상보다 ‘인기상’ 더 욕심
결혼도 타이밍...외롭지만 좋은 때 기다릴래요

정려원은 ‘마녀의 법정’을 통해 성공의 감증을 해소시켰다. 그리고 배우로서 ‘재발견’의 성과를 이뤄냈다.

사진제공 | 키이스트

연예뉴스 HOT 5

방탄, 美 ABC방송 신년맞이 쇼 출연

방탄소년단이 미국 유명 신년맞이 TV쇼에 출연한다. 미국 지상파 ABC의 신년맞이 쇼 ‘딕 클라크스 뉴이어서 로킹 이브’는 공식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출연 소식을 알렸다. 방탄소년단은 11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s)에 초청받아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뉴이어서 로킹 이브’ 녹화에 출연했다. 방탄소년단은 12월31일 방송 예정인 ‘뉴이어서 로킹 이브’에서 ‘러브 유 어펠트 송-허’ 앨범 수록곡 ‘DNA’와 ‘마이크 드림’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뉴이어서 로킹 이브’에는 시애라, 슈가랜드, 닉 조나스, 카밀라 카베요 외 여러 유명 가수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한편 방탄소년단이 9월 발표한 ‘러브 유 어펠트 송-허’ 앨범이 13일 한터차트 집계 사상 단일 앨범으로는 처음으로 판매량 100만장을 넘었다.

블랙핑크 ‘마지막...’ 뮤비 2억뷰 눈앞

걸그룹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뮤직비디오가 2017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케이팝 비디오로 선정됐다. 13일 유튜브에 따르면 올해 유튜브에 공개된 케이팝 뮤직비디오 중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이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6월22일 공개된 ‘마지막처럼’ 공식 뮤직비디오는 13일 현재 1억9826만 조회수를 넘어서며 2억 조회수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해외 인기와 인지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인 유튜브를 통해 ‘케이팝 대표주자’라는 수식어를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 앞서 9월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은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올여름 강타한 유튜브 최고의 곡 톱25’에 한국 가수의 노래로는 유일하게 포함기도 했다.

가상화폐 사기 연루 박정운 검찰 조사

수천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된 가수 박정운(52)이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8일 박정운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한 차례 더 조사한 후 피의자로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정운이 채굴기 운영을 대행하는 미국업체 ‘마인맥스’ 회장 A씨가 출자한 계열사를 운영하며 가상화폐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약 2만 명으로부터 모두 2700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채림, 결혼 3년만에 득남

한-중 커플 채림(38)과 중국배우 가오쯔치(36)가 결혼 3년 만에 아들을 얻었다. 가오쯔치는 12일 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득남 소식을 전했다. “내 인생에 새로움이 생겼다. 행복하게 보내고 있고, 깊이 감격하고 있다. 감사하다”는 소감과 함께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아기의 발 도장이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채림도 13일 소속사 싸이더스HQ를 통해 “많은 축하와 관심 감사드립니다.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키워주겠다”고 밝혔다. 채림-가오쯔치 부부는 중국 CCTV 드라마 ‘이씨가문’에서 부부 호흡을 맞추다 연인으로 발전했다. 2014년 중국에서 가족과 지인 등 소수의 인원만 초대해 결혼식을 올렸고, 다시 한국에서도 서울 삼성동에 서 전통 혼례 방식으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CJ E&M, 내년 1월 오락채널 XtvN 개국

문화콘텐츠기업 CJ E&M이 오락 전문 채널 XtvN을 개국한다. CJ E&M 측은 13일 “2018년 1월19일 XtvN을 개국한다.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젊은 감성의 기발한 콘텐츠로 오락 전문 방송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인터넷과 모바일은 물론, 다채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경험하며 누구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XtvN은 tVn의 독자적인 감성과 제작 역량을 더해, 엔터테인먼트에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다는 계획이다. 채널명의 ‘X’에는 ‘미지수’ ‘익사이팅’ ‘컬래버레이션’ ‘곱하기’ 등의 의미를 담았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